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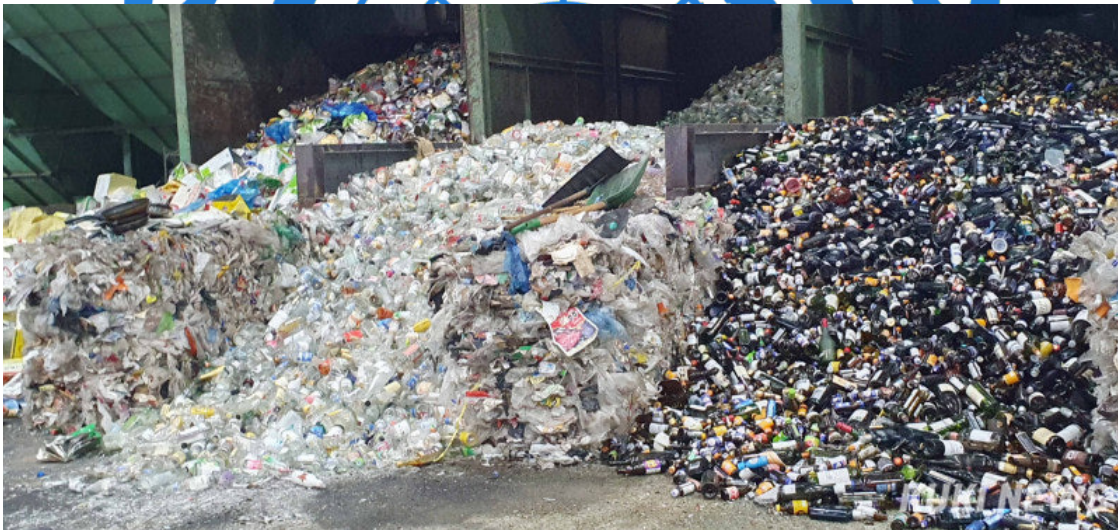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09. 09. (수요일)

“분리배출하면 모두 재활용될까?”...플라스틱 재활용의 불편한 진실

- 높은 재활용률 뒤에 가려진 현실...“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 어려워” -



이미지 출처: 쿠키 뉴스

분리배출한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새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플라스틱 중 상당수는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며 재활용되지 못한다. 특히 통계에 잡히는 ‘재활용률’이 실제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율과는 차이가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그린피스의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통계상 재활용률은 약 64%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물질재활용 비중은 약 26% 수준에 그친다. 폐

플라스틱을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까지 재활용에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재활용’과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활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플라스틱은 PET, PP, PE, PVC 등 여러 종류의 재질로 나뉘며 서로 다른 재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여러 소재가 결합된 복합재질 포장재도 재활용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 모두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한환경공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982년 15kg에서 2020년 150kg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역시 같은 기간 2kg에서 139kg으로 크게 늘었다.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만들어 다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줄이고, 재생원료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AI 선별설비와 열분해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을 강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리 인프라 확대와 탈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며, 향후 폐배터리,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으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송윤진, 장서연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